

## 지역미래견인기업 사례(9) 히노공업

### - 건설현장을 쾌적하게 -

- 동사는 가설화장실의 제조와 판매, 렌탈 분야에서 업계의 대표적인 기업으로서, 현장의 니즈를 반영한 제품개발이 강점
- 동사는 여성용 가설화장실을 제품화하고 쾌적한 화장실의 트렌드를 창출하는데 주력하고 있음
- 동사는 대규모 재해 발생 시 자치체나 국가에 전면적으로 협력하여 가설화장실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음

#### □ 종래 가설화장실의 2배의 면적을 실현

- 주택 등의 건설 현장이나 토목공사현장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폴리에틸렌제 가설화장실은 일반적으로 협소하고 비위생적인 이미지가 있을지도 모름
  - 그러나 최근에는 가설 화장실 중에서도 쾌적한 화장실이라는 카테고리의 제품이 등장하고 있고, 종래보다도 청결하고 사용하기 쉬운 화장실이 보급되고 있음
- 이 쾌적한 화장실을 다른 업계에 앞서 제안한 것이 가설화장실의 대형업체인 히노공업임
  - 건설 현장에서 일손부족이 심각해지는 가운데, 작업환경 개선은 큰 과제이며 여성의 활약 촉진도 요구되고 있음
  - 동사는 현장의 니즈를 반영한 제품개발을 통하여, 일하기 쉬운 직장환경 조성에 공헌하고 있음

#### □ 현장의 니즈를 반영한 제품개발이 강점

- 히노공업은 가설화장실의 제조와 판매, 렌탈 분야에서 업계의 대표적인 기업임
  - 건설공사 현장에서 가장 이용되는 폴리에틸렌제 가설화장실 외에 양식변기나 세면대 등을 일체화된 장비를 갖춘 고기능의 옥외 화장실, 다수의 독실을 비치한 집합형 화장실하우스, 재해용 간이화장실 등 여러 형태를 비치하고 있음
  - 판매·렌탈과 함께 제품이 매출액의 절반 이상을 점하나, 화장실 이외에도 가설 샤워실이나 목욕실, 경비실, 화장실부대 설비 등을 취급하고 있음
  - 설립은 1952년으로 가설화장실의 제조로부터 시작, 1970년 전후에 렌탈사업에 착수하여 업무내용을 확대해왔음

- 렌탈에 관여함으로써, 「현장의 니즈를 수집할 수 있게 되고, 현장을 잘 아는 사원의 제안을 중시하여 하의상달(보텀업)형 제품개발이 가능한 회사의 큰 강점이다」고 쓰미다 요시노부(積田喜信) 사장은 설명함

□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여성을 위한 가설화장실을 제품화

- 동사가 주력하고 있는 사업의 하나가 여성용 가설화장실 「프라우 토이레」 시리즈의 전개임
  - 남성사회의 건설현장에 종래는 거의 없었던 여성전용의 가설화장실을 제안함으로써, 건설업계에서의 여성 활약을 지원하고 있음
- 동 시리즈를 제공하기 시작한 것은 2014년으로 우선 여성전용의 폴리에틸렌제 가설 화장실 「프라우 토이레LX시리즈」를 제품화함
  - 일반적인 가설화장실의 색은 회색이나 푸른색인데 비하여 동 제품은 핑크색을 채용함
  - 사이즈는 기존 폴리에스텔제 화장실과 크게 다르지 않으나 장비는 난방좌변기의 양식기기, 의음(인공음향효과)장치, 지권기(두루마리 화장지 위에 선반을 붙여 간단한 물건을 올려 둘 수 있게 한 것) 등을 충실히 하고 있음
  - 또한 외관을 핑크색으로 하여 여성용임을 강조함으로써 남성들이 사용하기 어렵게 하고 여성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함
- 그 후 옷을 갈아입거나 물건을 두기위한 공간이 필요하다고 하는 현장 여성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, 내부 공간을 종래의 2배로 넓혀 갱의실에도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 「프라우 토이레WLX시리즈」를 제품화함
  - 이것은 일반적인 폴리에틸렌제 가설화장실을 2동 결합한 것 같은 형태를 하고 있어, 내부에 수세기나 거울, 다수의 선반, 착체대(위에 올라서서 옷, 신발을 갈아 신을 수 있도록 한 것) 등을 구비, 옷을 갈아입거나 몸가짐을 정리하는데 충분한 공간을 확보함

□ 쾌적한 화장실의 트렌드를 창출

- 쓰미다 사장에 의하면, 여성전용 가설화장실의 필요성 자체는 종래부터 업계에서 인식 되었다고 함
  - 그러나 팔린다는 보증이 없었기 때문에 제품화에 뛰어드는 메이커가 좀처럼 나타나지 않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음

- 그러한 가운데, 건설업계에서 여성의 활약을 추진하려고 하는 기운이 높아짐에 따라, 동사는 제품화를 검토함
- 여성이 활약하는 환경을 정비한다고 하는 시점에서 제품을 보았을 때, 지금까지의 가설화장실에서는 전혀 불충분하다고 인식하게 되었음
- 리스크도 있었으나 여성 활약 촉진이라고 하는 업계의 기운이 일과성은 아니고 앞으로는 당연한 것이 될 것이라고 믿고 제품화에 뛰어 들었다고 쓰미다 사장은 말함
- 그 결과 프라우 토이레는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히트를 쳤
- 현재는 여성도 남성도 모든 작업자가 사용하기 쉬운 가설화장실을 보급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업계의 트렌드로 되어, 국토교통성에서는 양식변기, 수세기능, 이중열쇠 등 일정한 스펙을 충족한 가설화장실을 쾌적화장실로 정하여 2016년부터 보급하고 있음
- 이러한 트렌드에 선수를 친 동사에서도 여성전용 가설화장실의 노하우를 응용하여 남녀 모두 사용가능한 쾌적한 화장실 제품화를 가속화하고 있음

□ 재해시에 크게 공헌

- 가설화장실은 건설현장 외에 재해시의 피난소 등에 필요한 제품임. 이 때문에 동사에서는 대규모 재해 발생시에는 자치체나 국가에 전면적으로 협력하여 가설화장실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음
- 2016년 구마모토 지진발생 시에는 경제산업성으로부터의 요청에 의해 간이화장실을 약 1,200개와 가설 화장실을 약 500동 출하함
- 또한 과거 재해를 교훈으로 가볍고 운반하기 쉽고 부서지기 어려운 수지제 변기를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등, 동사의 가설화장실이 평상시와 재해시, 양방의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품개발에 주력하고 있음
- 동사는 앞으로도 일본의 안전·안심을 지켜주는 제품의 제공을 통하여 사회적 공헌을 계속해 나갈 것임. 

<b>【기업정보】</b> 히노공업	
▽소재지= 치바현이찌가와시 하라키 3024	▽설립= 1952년4월
▽사장= 쓰미다요시노부(積田喜信)	▽매출액= 약103억 (2017년 9월기)

< 참고자료 >

경제산업성, 『지역미래견인기업 vol.5』 2018년 5월16일 <https://meti-journal.jp/p/251>